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3. No. 5, pp. 219-228, 2022
e-ISSN 2713-6353
DOI : https://doi.org/10.15207/JKCS.2022.13.05.219

기업의 경영전략이 회계감사 지연에 미치는 영향

김정훈[1], 김민희[2], 도기철[1], 이유선[2*]
[1]숭실대학교 회계학과 박사과정, [2]숭실대학교 회계학과 박사

The Effect of Business Strategy on Audit Delay

Jeong-Hoon Kim[1], Min-Hee Kim[2], Kee-Chul Do[1], Yu-Sun Lee[2*]
[1]Ph. D. Candidate, Department of Accounting, Soongsil University
[2]Ph. D., Department of Accounting, Soongsil University

요 약 감사품질의 제고를 위해 감사인과 경영자 간 의견불일치 발생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며, 본 연구는 회계적 관점이 아닌 기업의 경영전략 유형이 감사위험과 회계감사 지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표본 2,910 기업-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어형 기업에 비해 선도형 기업은 신제품, 연구개발비용, 무형자산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확대시킬 수 있고, 경영자와 감사인 간에 의견불일치로 인해 감사지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KOSPI 상장 기업에 비해 KOSDAQ 내 선도형 기업은 재무보고품질이 낮아 감사지연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경영전략이 감사인과 회사 간의 의견불일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주식시장별로 감사시차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감사위험이 높은 선도형 기업에 대해 감사인의 강한 주의의무가 필요함을 보여주며, 아울러 선도형의 정의를 통해 선도형 기업에 대한 강화된 감사제도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정책의 의의를 갖는다. 또한 향후 선도형 기업을 구성하는 비재무적 요소와 감사위험의 관계를 규명하는 후속 연구가 수행될 것을 기대한다.

주제어 : 경영전략, 선도형, 방어형, 감사시차, 감사지연

Abstract In order to improve audit quality,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occurrence of disagreement between auditors and managers, and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Business Strategies on audit risk and accounting audit delay. To this end, we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using sample 2,910 firm-year data from 2018 to 2020 of KOSPI-listed and KOSDAQ-listed companie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mpared to the companies of defender type, prospectors can expand audit procedures for new products, R&D costs, and intangible assets, and increase audit delays due to disagreement between managers and auditors. Second, compared to KOSPI-listed companies, the prospectors in KOSDAQ are more likely to have lower financial reporting quality, which further increases audit delays. The results of this study analyzed whether a company's Business Strategy affects the possibility of disagreement between an auditor and a company, and verifie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audit report lag by stock marke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auditors' strong duty of care is needed for the companies of prospector type with high audit risk, and it is meaningful to present reinforced audit systems and specific guidelines for the companies of prospector type through the definition of prospector type. It also enables the expansion of research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non-financial factors and audit risks that make up the companies of prospector type.

Key Words : Business Strategy, Prospector, Defender, Audit Report Lag, Audit Delay

*Corresponding Author : Yu-Sun Lee(2yyus@naver.com)
Received February 10, 2022 Revised May 12, 2022
Accepted May 20, 2022 Published May 28, 2022

1. 서론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감사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나 감리제도 등 다양한 각도의 법률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감사위험은 기업의 고유위험, 통제위험, 적발위험으로 구분되며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은 기업 내부에서 가지는 위험이며, 적발위험은 외부 감사인의 노력으로 결정된다. 즉, 감사위험은 외부감사인의 성향뿐만 아니라 기업 특성에 의해서도 결정되기 때문에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해야한다.

외감법이나 감리제도 등의 운영을 통해 감사품질을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불일치가 발생하기 쉬운 기업의 상황에 대해 적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실제 회계감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회사와 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나 회계적 이슈는 적정의견의 경우 특정계정과목과 금액적크기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비적정 감사의견이 제출되지 않는 한 파악하기 어렵다. 감사인과 경영자의 의견불일치가 발생하기 쉬운 기업의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효과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있고, 감사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불일치를 회계감사 지연(이하 "감사지연")에 따른 감사보고 시차(이하 "감사시차")로 측정하고, 감사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특성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는 대부분 내부통제제도, 재무보고의 품질, 재량적 발생액 등과 같은 회계적 관점에서의 기업특성이 감사시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회계적 관점을 넘어 경영전략과 감사위험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며, 해당 산업과 외부환경에 대응하는 경영전략의 유형이 감사시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경영전략은 감사인의 관점에서 보다 근원적인 감사위험의 요소이며, 감사인의 관점에서 기업의 고유위험을 구성한다. 선도형과 방어형으로 구분되는 Miles and Snow(2003)의 경영전략은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었고[1], 회계학의 영역에서도 해당 개념을 도입하여 재무보고의 품질이나 조세회피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Bentley et al.(2013)은 선도형 기업에서 재무보고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고[2], Higgins et al.(2015)은 선도형 기업이 방어형 기업에 비해 조세회피의 공격성이 더 높다고 주장하였다[3]. 국내 연구에서도 경영전략이 조세회피나 이익조정에 미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4,5],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감사시차는 경영자의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인과 경영자 간 의견불일치가 발생하여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경우 발생한다. 나종길과 최기호(2004)는 보고품질이 낮은 기업이 감사시차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국내외 연구에서 감사시차를 증가시키는 기업의 특성을 규명하고 있다[6]. 선도형 기업이 낮은 보고품질로 인해 감사인의 감사절차에 영향을 미치고, 경영자와 의견불일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면 감사지연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의 경영전략과 외부 감사지연과의 관련성을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영전략과 회계감사의 설명요인을 결합하여 연구를 확장하고 있다. 즉, 경영전략이 감사인의 감사절차와 감사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지 분석하고, 주식시장 별로 그 차이가 있는지 추가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의 의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산업 내에서 공격적 성향을 갖는 선도형 기업은 상대적으로 재무보고품질이 낮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감사인은 선도형에 근접한 기업에 대해 보다 많은 주의의무가 필요하다는 함의를 보여준다. 둘째, 기업 유형에 따른 감사절차 제정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제시한다. 재무적 기준과 정성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선도형 기업을 정의하고, 선도형 기업에 대한 보다 강화된 감사제도와 감사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선도형 기업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세분화하여, 기업의 인사조직 안정성, 연구개발 정책 등이 감사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회계감사 지연과 관련된 선행연구

기업의 특성과 회계환경이 감사지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Davis and Whittred

(1980)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이해관계자가 많고 다양하여 적시성 있는 보고를 요구하므로 감사지연이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7]. Ashton et al.(1987)은 적정의견이 아닌 기업, 비금융업, 비상장 기업, 내부통제가 취약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감사시차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감사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소가 감사시차를 증가시키는 경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8]. Bamber et al.(1993)은 회사에 대한 투자자의 유형이 많아지면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존 정도가 커지므로 감사실패에 따른 감사위험을 고려하는 감사인은 회사와 갈등이 커진다고 보았다. 또한 세밀하게 구조화된 감사방법은 보다 많은 자원의 투입을 요하므로, 비정형의 감사방법보다 감사지연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하였다[9].

Knechel and Payne(2001)은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감사참여자의 비중이 커질수록 감사지연이 감소하는 현상을 발견하였고, 세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기업일수록 감사시차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10]. Lee and Jahng(2008)의 연구에서도 세무와 내부통제 제도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감사인의 경우 감사시차가 감소한다고 일관되게 보고하였다[11]. 황국재 외(2008)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된 상황에서는 기업의 내부통제제도가 취약할수록 감사인의 책임이 강화되므로 감사지연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12]. 배창현과 손성규(2013)는 소유와 지배의 괴리도는 감사시차가 양(+)의 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하였고[13], 배창현과 우용상(2014)은 특수관계자 거래규모가 클수록 감사보고가 지연된다고 보고하였다[14]. 김도연 외(2015)의 연구에서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활동을 중시할 경우에는 감사인이 감사위험을 낮게 평가하여 감사노력을 줄일 수 있으므로 감사시차를 단축시킨다고 보고하였다[15]. 이다혜와 변상혁(2020)은 경영자의 과신성향이 커질수록 감사시차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특징은 경영자가 과대이익을 보고한 상황에서 대형회계법인이 감사를 수행할 경우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보았다[16].

경영자의 재무보고의 품질이 감사시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종길(2001), 나종길과 최기호(2004)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량적 발생액은 감사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감사시차를 증가시킨다[17,18]. 또한 박종성 외(2011)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재무보고의 특기사항 기재여부가 감사인과 경영자 간에 갈등을 유발하며, 이는 감사보고서의 발행을 지연시킨다고 보고하였다[19]. 강내철 외(2020)는 가결산 실적변경에 대한 정정공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품질이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감사인의 우려가 해소됨으로써 감사지연이 감소된다고 주장하였다[20]. 박형주와 최지환(2021)은 정보비대칭의 대용치로 일별주식수익률의 표준편차와 일별거래대금회전율을 사용하여, 기업의 정보비대칭과 감사시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21]. 전반적으로 기업의 회계정보 투명성이 감사지연을 증가시킨다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회계적 요소가 아닌 기업특성과 감사지연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미하다. 본 연구는 회계적 특성이 아닌 기업의 경영전략 유형이 감사지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2.2 기업의 경영전략과 관련된 선행연구

기업의 경영전략은 해당 산업 내에서 외부환경 변화와 경쟁회사에 대응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품, 시장, 리스크 등에 대해 구사하는 전략은 물론 조직구조와 기업문화에 대한 접근방식을 포괄한다. Miles and Snow(2003)는 연속(continuum) 개념을 통해 경영전략의 객관적 측정치를 도출해 내었는데, 기업이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에 따라, 연속선상의 양 끝단에 위치하는 '공격형(prospector)'과 '방어형(defender)'으로 경영전략을 구분하고, 두 유형의 중간에 위치하는 기업의 경영전략은 '분석형(analyzer)'으로 설명하였다[1]. 시장 상황의 변화를 신속하게 받아들여 제품-시장 조합(product-market mix)을 변경하는 기업은 선도형 기업에 해당하고,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전략을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기업은 방어형 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선도형 기업들은 창조성과 혁신을 중요시하고, 신속한 시장 대응을 위해 분권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이나 의사결정 구조를 갖게 된다. 반면 방어형 기업은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공식화된 중앙집권적 기업 구조를 갖는다.

Bentley et al.(2013)은 선도형 기업일수록 재무제표 재작성, 소송 발생 등으로 측정된 재무보고 위반의 빈도가 상승한다고 보고하였고, 그에 따른 감사위험의 증가로 인해 감사보수도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2]. Bentley-Goode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선도형 기업은 내부

통제제도가 취약할 가능성이 크고, 이를 개선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더 낮다고 주장하였다[22].

국내에서도 재무회계 관점에서 경영전략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유현수 외(2015)의 연구에서는 경영전략지수가 높은 공격형의 기업일수록 자본비용이 증가하고 보고하였고[23], 최규담 외(2015)는 경영전략지수가 높을수록 조세회피의 공격성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4]. 또한 재무보고의 품질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선도형 기업일수록 발생액의 질이 낮고, 덜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한다고 주장하였다[5]. 최규담 외(2017)는 선도형 기업일수록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24]. 이정은과 노길관(2021)은 기업의 경영전략에 따라 자발적 공시가 정보비대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는데, 분석형(analyzer) 기업일 경우 자발적 공시가 정보비대칭을 완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25]. 원가회계의 측면에서 경영전략에 대한 연구로서, 박원과 김태완(2021)은 원가비대칭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특성 중 경영전략의 역할을 규명하였다. 선도형 기업은 원가의 탄력적 행태에 음(-)의 영향을, 방어형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은 원가의 탄력적 행태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26]. 이와 같이 경영전략이 기업의 보고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는 기업 관점에서 더 나아가 외부 당사자인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불일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가설의 설정

경영전략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선도형 기업의 경우 재무보고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정적인 사업을 추구하는 방어형 기업과 달리 선도형 기업은 신제품과 신시장을 지향하므로, 상대적으로 다양한 이익조정의 기회를 갖게 된다. 둘째, 방어형 기업에 비해 신규자금소요가 많은 선도형 기업은 자금조달의 지속성에 민감하므로 이익조정의 동기를 갖는다. 선도형 기업은 시장 혁신과 신제품 출시를 위해서 연구개발이나 광고에 공격적으로 투자하여야 하며, 시장 안착 실패 시 수익성 악화와 재무적 곤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익상향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셋째, 방어형 기업은 대체재를 갖는 경쟁회사와의 비교가능성으로 인해 이익조정에 소극적이지만, 차별성 높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형 기업은 정보비대칭을 활용하여 이익조정에 공격적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선도형 기업은 재무보고의 품질이 낮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 감사인 입장에서는 감사위험이 높은 기업으로 받아들여진다.

일반적으로 감사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해 감사인은 감사시간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갖는다[27,28]. 선도형 기업이 갖는 이익조정 경향은 감사인의 입장에서 위험요소로 받아들여지고, 감사인은 감사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감사자원의 투입을 늘리고자 할 것이고, 이는 감사지연으로 이어진다. 또한 선도형 기업의 신기술과 새로운 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감사인 입장에서, 감사실패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감사시간과 엄격한 사후검증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감사보고서일이 늦춰질 수 있다.

또한 방어형 기업에 비해서 선도형 기업은 경영자와 감사인 간에 신제품, 연구개발비용, 무형자산 등에 대한 의견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경영자와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에 대해 협의과정이 길어질수록 감사보고서일은 지연되므로 감사시차가 증가할 수 있다. 선도형 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절차 확대 및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충돌 가능성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 1을 설정한다.

H1: 기업의 경영전략 유형은 회계감사 지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을 통해 선도형 기업이 감사지연을 증가시키는 현상이 검증된다면, 주식시장 유형별로 선도형 기업과 감사지연의 관계를 분석해 볼 수 있다. 경영전략에 따라 이익조정의 동기에 달라진다는 연구와 유사하게, 유가증권시장(KOSPI)과 코스닥시장(KOSDAQ)의 기업 간에도 이익조정과 회계투명성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존재한다. 윤순석(2001)은 KOSDAQ 기업이 KOSPI 기업보다 발생액을 통한 이익관리를 더 많이 시도한다고 보고하였고[29], 정미라와 이호영(2008)은 KOSPI 기업이 KOSDAQ보다 이익과 발생액의 지속성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30]. KOSDAQ은 KOSPI에 비해 자금조달에 민감한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고, 소유

집중도가 높으며 소유경영자의 지배 형태가 많다는 특징을 갖는다. KOSDAQ은 KOSPI보다 엄격한 상장 요건과 모니터링 제도를 갖추고 있고, 이해관계자가 적으므로 회계투명성이 더 낮다고 볼 수 있다[31,32].

선도형 기업에서 나타나는 신제품 매출, 연구개발비, 무형자산 계상 등은 감사인 입장에서 감사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며, 경영자와 회계처리에 대한 의견불일치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KOSDAQ 기업은 KOSPI 기업에 비해 재무보고의 품질이 낮아 회계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감사지연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KOSDAQ 내 선도형 기업은 감사지연을 더욱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다음의 가설 2를 설정한다.

H2: 기업의 경영전략 유형이 회계감사 지연에 미치는 영향은 상장시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3.2 변수의 측정

Table 1. Measurement of Business Strategy

Step 1. Selection of six measurement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Measurements	Calculation method
Research and development	Average of the last five years of R&D expenditure to sales
Efficiency	Average of the last five years of the ratio of employees to sales
Growth potential	Average sales growth over the last five years
Marketing	Average SG&A expenses in the last five years
Organizational stability and decentralization	Last five-year standard deviation of change in the number of employees
Capital intensity	Average of the last five years of capital assets to total assets
Step 2. Ranking Scoring	
Ranking is assigned to each of the six measurements obtained through the first stage process in five stages by industry-year, and then one point is given to the lowest measurement and five points are given to the highest measurement (in the case of capital intensity, the opposite score is given).	

본 연구의 경영전략 변수는 Miles and Snow(2003)가 제시한 이론을 이용한 최규담 외(2017)의 방법론에 따라 측정하였다[1,24]. 즉, 연구개발비집중도, 종업원집중도, 매출액성장률, 마케팅활동집중도, 조직안정성, 자본집약도의 6가지 측정요소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각 측정요소의 측정방법은 Table 1과 같으며, 각 기업-연도별로 측정치가 산출된다. 이후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KSIC)의 중분류 기준으로 산업을 분류한 후, 연도별 순위를 5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점수를 부여한다. 부여된 점수들의 종합점수(Strategy)는 최하 6점에서 30점까지 부여되며 종합점수가 높을수록 선도형에, 낮을수록 방어형에 가까운 성향을 나타낸다.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경영전략 종합점수를 6점-13점 구간(방어형), 14점-22점 구간(분석형), 23-30점 구간(선도형)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전략 종합점수(Strategy)에 따른 분석과 종합점수에 따른 선도형(Prospector)과 방어형(Defender)을 구분한 분석을 각각 진행한다.

3.3 연구모형

본 연구는 기업의 경영전략이 감사인과의 의견불일치를 유발하여 감사를 지연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식 (1)을 설정하였다.

$$\begin{aligned} LAudit\ Delay_t &= \beta_0 + \beta_1 BS_t + \beta_2 SIZE_t \\ &+ \beta_3 LEV_t + \beta_4 GRW_t + \beta_5 ACFO_t \\ &+ \beta_6 FOR_t + \beta_7 ROA_t + \beta_8 AU_t + \beta_9 IY_t \\ &+ \beta_{10} LIQ_t + \beta_{11} INVREC_t + \beta_{12} AGE_t \\ &+ \beta_{13} MKT_t + \beta_{14} BIG4_t + \Sigma YD + \Sigma IND + \varepsilon_t \end{aligned} \quad (1)$$

여기서,
$LAudit\ Delay_t$ = 회계감사 지연(감사시차)
(결산일로부터 감사보고서 일까지의 누적 일수의 로그값);
BS_t = 경영전략(Business Strategy) 측정치;
$STRATEGY_t$ = 경영전략지수(Business Strategy);
$PROSPECTOR_t$ = 경영전략(Business Strategy)에서 선도형 유형의 기업이면 1, 아니면 0;
$DEFENDER_t$ = 경영전략(Business Strategy)에서 방어형 유형의 기업이면 1, 아니면 0;
$SIZE_t$ = 기업규모(기초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LEV_t = 부채비율(총부채/기초총자산);
GRW_t = 매출액성장률 ((매출액-전기매출액)/기초총자산);
$ACFO_t$ = 영업현금흐름(영업현금흐름/기초총자산);
FOR_t = 외국인지분율;
ROA_t = 총자산순이익률;
AU_t = 주기적지정제 대상기업이면 1, 아니면 0;
IY_t = 2019년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 1, 아니면 0;
LIQ_t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INVREC_t$ = 초도감사면 1, 아니면 0;
AGE_t = 기업연령의 로그값;
MKT_t = 코스닥이면 1, 아니면 0;
$BIG4_t$ = Big4 감사법인에게 감사를 받았으면 1, 아니면 0;
ΣYD = 연도 더미;
ΣIND = 산업 더미;

다음으로 주식시장 유형별로 기업의 경영전략과 감사지연의 관계에 차별적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호교차항을 포함한 식 (2)를 설정한다.

$$LAudit\ Delay_t = \beta_0 + \beta_1 PROSPECTOR_t + \beta_2 DEFENDER_t + \beta_3 MKT_t + \beta_4 PROSPECTOR{*}MKT_t + \beta_5 SIZE_t + \beta_6 LEV_t + \beta_7 GRW_t + \beta_8 ACFO_t + \beta_9 FOR_t + \beta_{10} ROA_t + \beta_{11} AU_t + \beta_{12} IY_t + \beta_{13} LIQ_t + \beta_{14} INVREC_t + \beta_{15} AGE_t + \beta_{16} BIG4_t + \Sigma YD + \Sigma IND + \varepsilon_t \quad (2)$$

여기서,
$LAudit\ Delay_t$ = 회계감사 지연(감사시차) (결산일로부터 감사보고서 일까지의 누적 일수의 로그값);
BS_t = 경영전략(Business Strategy) 측정치;
$STRATEGY_t$ = 경영전략지수(Business Strategy);
$PROSPECTOR_t$ = 경영전략(Business Strategy)에서 선도형 유형의 기업이면 1, 아니면 0;
$DEFENDER_t$ = 경영전략(Business Strategy)에서 방어형 유형의 기업이면 1, 아니면 0;
MKT_t = 코스닥이면 1, 아니면 0;
$PROSPECTOR_t{*}MKT_t$ = *PROSPECTOR*과 *MKT*의 상호작용항.
$SIZE_t$ = 기업규모(기초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LEV_t = 부채비율(총부채/기초총자산);
GRW_t = 매출액성장률 ((매출액-전기매출액)/기초총자산);
$ACFO_t$ = 영업현금흐름(영업현금흐름/기초총자산);
FOR_t = 외국인지분율;
ROA_t = 총자산순이익률;
AU_t = 주기적지정제 대상기업이면 1, 아니면 0;
IY_t = 2019년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 1, 아니면 0;
LIQ_t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INVREC_t$ = 초도감사면 1, 아니면 0;
AGE_t = 기업연령의 로그값;
$BIG4_t$ = Big4 감사법인에게 감사를 받았으면 1, 아니면 0;
ΣYD = 연도 더미;
ΣIND = 산업 더미;

식 (1)의 종속변수 *LAudit Delay*는 감사지연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결산일로부터 감사보고서일까지의 누적 일수의 로그값으로 측정하였다. 가설 1의 예측대로라면 선도형 전략의 기업일수록 의견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변수 *BS*변수와 유의한 양(+)의 값을 예상한다. 식 (2)의 관심변수는 *PROSPECTOR***MKT*이며 가설의 예측대로 코스닥기업이면서 선도형 기업일수록 감사지연이 증가한다면 β_4의 계수 값은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고려된 통제변수는 선행연구에 따라 기업특성을 나타내는 기업규모, 부채비율, 수익성을 포함하였다(DeFond and Jiambalvo, 1994)[33]. 선행연구에 따라 감사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의 복잡성(*INVREC*), 단기 재무안정성(유동비율)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2017년 외감법 개정으로 인하여 2020년부터 총 220개의 상장사에 대하여 주기적 지정제에 따른 감사인을 지정하였는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감사인은 주기적 지정제 대상 기업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감사노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훈 외, 2020)[34]. 따라서 2020년 주기적 지정제 대상기업(*AU*)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 격상여부(*IY*)를 통제 변수로 포함하였다(Becker et al,. 1998; 이유선 외, 2021)[35,36]. 또한 외부모니터링의 강도에 해당하는 외국인지분율도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3.4 표본의 선정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유가증권,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조건을 제외한 기업을표본으로 선정하였다.

(1) 금융업에 속하는 기업
(2) 초도감사인 기업
(3) 12월 결산기업이 아닌 기업
(4) Fn-Guide 데이터베이스에서 재무자료를 추출할 수 없는 기업
(5) 사업보고서를 통해 감사보고서 날짜를 추출할 수 없는 기업

표본 간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12월 결산이 아닌 기업과 금융업종을 제외하였다. 또한 초도감사를 받는 기업들은 첫해에 감사인이 많은 시간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Fn-Guide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재무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며, 사업보고서를 통해 감사보고서 날짜를 추출할 수 있는 최종 표본은 2,910 기업-연도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변수의 상·하위 1%를 초과하는 관측치는 Winsorization 하였다.

4. 실증분석결과

4.1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분석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감사시차(*Audit Delay*)

는 평균 74일이며, 검증변수 경영전략지수(*Business Strategy*)의 평균은 18.475점(18점)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본에서 19.1%가 선도형(*PROSPECTOR*) 유형의 기업으로 분류되며, 전체 표본의 13.8%는 방어형(*DEFENDER*) 기업으로 분류된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MEAN	STD	MIN	MEDIAN	MAX
Audit Delay	74.527	6.424	52	76	96
LAudit Delay	4.307	0.092	3.951	4.331	4.564
STRATEGY	18.475	4.218	7	18	30
PROSPECTOR	0.191	0.393	0	0	1
DEFENDER	0.138	0.345	0	0	1
SIZE	19.293	1.422	16.765	18.978	23.964
LEV	0.382	0.229	0.025	0.371	1.201
GRW	0.005	0.190	-0.719	0.005	0.767
ACFO	0.046	0.089	-0.273	0.044	0.313
FOR	8.717	11.510	0	3.800	55.910
ROA	0.005	0.116	-0.556	0.019	0.312
AU	0.100	0.301	0	0	1
IY	0.063	0.243	0	0	1
LIQ	3.184	4.722	0.132	1.629	33.709
INVREC	0.228	0.163	0	0.207	0.760
AGE	2.616	0.783	0.693	2.773	3.912
MKT	0.596	0.491	0	1	1
BIG4	0.478	0.500	0	0	1

1) Detailed definition of variables is in the note of equations (1).
2) The unit of AuditDelay is the number of days, and LAuditDelay is its natural log value. SIZE is the natural logarithm of total assets, and the unit of FOR is %. The unit of STRATEGY is a score, and all other variables are proportional variables.

Table 3. Pearson Correlations

variable	*LAudit Delay*	*STRATEGY*	*PROSPECTOR*	*DEFENDER*
LAudit Delay	1	0.078 ***	0.045 **	-0.061 ***
STRATEGY		1	0.696 ***	-0.635 ***
PROSPECTOR			1	-0.195 ***
DEFENDER				1
N	2,910			

1) *, **, and *** denote the significance at 10%, 5%, and 1% level, respectively.
2) Detailed definition of variables is in the note of equations (1).

Table 3은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에 대한 상관관계가 요약·제시되어 있다. 종속변수인 회계감사 지연 변수(*Laudit Delay*)는 경영전략지수 변수(*STRATEGY*)와 선도형 여부 더미변수(*PROSPECTOR*)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방어형 여부 더미변수(*DEFENDER*)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경영전략에 따라 회계감사 지연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단순 상관관계분석이므로 통제변수를 고려한 다변량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4.2 회귀분석결과

Table 4는 식 (1)을 이용한 가설 1의 실증분석 결과이다. Model(1)은 경영전략지수를 연속변수(*STRATEGY*)로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이며, *STRATEGY*의 계수값은 0.001로 1% 수준에서 유의하다(t-stat=3.88). 이는 선도형 기업일수록 감사지연에 미치는 영향은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2)는 경영전략 변수를 연속변수가 아닌 더미변수 형태로 분석한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PROSPECTOR*(선도형 기업이면 1, 아니면 0)의 계수값은 0.007로 10% 수준에서 유의(t-stat=1.72)하며, *DEPENDER*(방어형 기업이면 1, 아니면 0)의 계수값은 -0.013으로 1% 수준에서 유의(t-stat=-2.66)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경영전략지수를 이용하여 표본을 선도형, 분석형, 방어형으로 구분했을 때 선도형이 감사 지연(감사시차)이 가장 높으며, 방어형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위의 결과를 해석하면 감사인은 선도형 기업의 신기술 또는 신시장을 위험요소로 인지하여 감사절차를 확대할 수 있고, 경영자와 의견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4. Regression Results for Hypothesis 1

Variable	Dep. Var. = LAudit Delay$_t$	
	Model(1)	Model(2)
intercept	4.295 (108.02)***	4.330 (112.96)***
STRATEGY	0.001 (3.88)***	
PROSPECTOR		0.007 (1.72)*
DEFENDER		-0.013 (-2.66)***
SIZE	-0.001 (-1.03)	-0.002 (-1.07)
LEV	0.030 (3.40)***	0.029 (3.26)***
GRW	-0.029 (-3.10)***	-0.027 (-2.92)***
ACFO	-0.021 (-0.94)	-0.022 (-1.00)
FOR	-0.000 (-4.48)***	-0.000 (-4.35)***
ROA	-0.068 (-3.81)***	-0.068 (-3.85)***
AU	-0.009 (-1.65)*	-0.010 (-1.74)*
IY	-0.016 (-1.97)**	-0.015 (-1.89)*
LIQ	-0.001 (-4.22)***	-0.001 (-4.14)***
INVREC	-0.014 (-1.15)	-0.014 (-1.20)
AGE	0.002 (1.08)	0.002 (0.90)
MKT	0.024 (5.37)***	0.024 (5.52)***
BIG4	0.027 (7.15)***	0.027 (7.20)***
YD	included	
IND	included	
Adj R^2	0.091	0.099
F-Value	14.82***	13.95***
N	2,910	

1) *, **, and *** denote the significance at 10%, 5%, and 1% level, respectively.
2) Detailed definition of variables is in the note of equations (1).

식 (2)를 이용한 가설 2의 실증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관심변수는 선도형 기업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PROSPECTOR*)와 코스닥 시장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MKT*)의 상호작용항이다. *PROSPECTOR*MKT*계수값은 0.019로 5% 수준에서 유의적이다(t-stat=2.04). 이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면서 선도형 기업인 기업들은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면서 선도형 기업인 기업들보다 감사지연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5의 결과는 선도형 기업의 감사위험요소 외에도, 코스피 시장 기업 대비 코스닥 시장 기업의 낮은 재무보고 품질이 감사지연을 더욱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5. Regression Results for Hypothesis 2

Variable	Dep. Var. = LAudit Delay$_t$
	Parameter Estimate(t-value)
intercept	4.334 (112.99)***
PROSPECTOR	-0.006 (-0.76)
DEFENDER	-0.013 (-2.74)***
MKT	0.021 (4.57)***
*PROSPECTOR*MKT*	0.019 (2.04)**
SIZE	-0.002 (-1.10)
LEV	0.028 (3.16)***
GRW	-0.027 (-2.92)***
ACFO	-0.023 (-1.03)
FOR	-0.000 (-4.40)***
ROA	-0.068 (-3.85)***
AU	-0.009 (-1.73)*
IY	-0.015 (-1.89)*
LIQ	-0.001 (-4.20)***
INVREC	-0.015 (-1.29)
AGE	0.001 (0.82)
BIG4	0.027 (7.22)***
YD	included
IND	included
Adj R^2	0.090
F-Value	13.54***
N	2,910

1) *, **, and *** denote the significance at 10%, 5%, and 1% level, respectively.
2) Detailed definition of variables is in the note of equations (1), (2).

5. 결론

내부통제제도, 재무보고의 품질, 재량적 발생액 등과 같은 회계적 관점에서의 기업요소가 감사시차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루었던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회계적 관점을 넘어 경영전략과 감사위험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며, 해당 산업과 외부환경에 대응하는 경영전략의 유형이 감사시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경영전략은 회계학의 영역과 결합되어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고 있지만, 기업의 경영전략이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기업의 경영전략이 선도형 기업에 가까울수록 감사인과 의견불일치 가능성을 높이는 경향이 검증된다면,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과 추가적인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신기술과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특성을 가진 선도형 기업에 대하여, 감사인은 위험을 높게 평가하여 감사절차를 확대할 수 있고, 신제품, 연구개발비용, 무형자산 등에 대한 의견불일치로 인해 감사지연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전략 관점에서 선도형 기업이 감사시차를 증가시키는지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2,910 기업-연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도형 기업일수록 감사시차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감사인이 선도형 기업의 경영전략을 감사위험으로 인지하여 감사자원의 투입을 늘리고, 정형화되지 않은 회계처리에 대해 경영자와의 의견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선도형 기업일수록 감사보고시차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코스닥 상장 기업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적인 모니터링이 약하여 재무보고의 품질이 낮고, 그로 인해 코스닥 상장의 선도형 기업일수록 감사위험이 더욱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감사시차 측정에 있어 감사착수일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과 경영전략지수의 측정오차는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보고품질이 낮을 수 있는 선도형 기업에 대해 주의의무를 통한 보다 보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선도형 기업에 대한 강화된 감사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기업 유형에 따른 감사절차 제정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제시한다. 재무적 기준과 정성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선도형 기업을 정의하고, 선도형 기업에 대한 강화된 감사제도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외 본 연구의 학문적인 의의로서, 선도형 기업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세분화하여, 기업의 인사조직 안정성, 연구개발 정책 등의 비재무적 요소가 감

사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가능하다.

REFERENCES

[1] R. E. Miles & C. C. Snow. (2003). *Organizational strategy, structure, and proces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 K. A. Bentley, T. C. Omer & N. Y. Sharp. (2013). Business strategy, audit fees and financial reporting irregularitie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30(2),* 780-817.

[3] D. Higgins, T. Omer & J Phillips. (2015). The influence of a firm's business strategy on its tax aggressivenes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32(2),* 674-702.

[4] G. D. Choi, K. S. Kim & H. S. Ryu. (2015). Business Strategy and Tax Avoidance. *Korean Accouting Association, 40(5),* 271-326.

[5] G. D. Choi, K. S. Kim & H. S. Ryu. (2016). Business Strategy and Accruals Quality. *Korean Accounting Journal, 25(3),* 261-305.

[6] C. K. Nah. (2004). Informativeness of Discretionary Accruals Depending on Accruals Quality and Auditor Types. *Korean Accounting Review, 29(1),* 117-142.

[7] B. Davis & G. P. Whittred. (1980). The association between selected corporate attributes and timeliness in corporate reporting : Further analysis, Abacus, June, 48-60.

[8] R. A. Ashton, J. J. Willingham & R. K. Elliot. (1987). An Empirical Analysis of Audit Dela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5(2),* 275 - 292.

[9] E. M. Bamber, L. S. Bamber & M. P. Schoderbek. (1993). Audit Structure and Other Determinants of Audit Report Lag : An Empirical Analysis. *Auditin g :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12(1),* 1-23.

[10] W. R. Knechel & J. L. Payne. (2001). Additional Evidence on Audit Report Lag.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20(1),* 137-146.

[11] H. Y. Lee & G. J. Jahng. (2008). Determinants of Audit Report Lag, Evidence from Korea - An Examination of Auditor-Related Factors. *Journal of Applied Business Research, 24(2),* 27-44.

[12] K. J. Hwang, K. B. Kim & A. Y. Lee. (2008). The Effects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on Audit Report Lag. *Korean Accounting Journal, 17(2),* 121-154.

[13] C. H. Bae & S. K. Sohn. (2013). The Effect of Agency Problem between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Minority Shareholders on Audit Report Lag. *Accounting Tax and Audit Research, (58),* 249-275.

[14] C. H. Bae & Y. S. Woo. (2014). The Effect of Related Party Transaction on Audit Report Lag. *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Studies (RAPS), 19(2),* 1-28.

[15] D. Y. Kim, K. W. Chung & M. W. Lee. (2015), The Effe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Audit Report Lag.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30(1),* 295-318.

[16] D. H. Lee & S. H. Byun. (2020). The Effect of Managerial Overconfidence on Audit Delay. *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Studies (RAPS), 25(2),* 27-55.

[17] C. K. Nah. (2001). Audit Reporting Lag and Accounting Variables. *Management and Economics, 34(2),* 95-111.

[18] C. K. Nah. & G. H. Choi. (2004). The Effect of Accounting Accruals on the Audit Report Lag. *Korean Accounting Review, 29(1),* 179 - 205.

[19] J. S. Park, Y. S. Oh, E. J. Cho & E. H. Jo. (2011). When There Are Conflicts between Auditors and Clients, Is the Issuance of Audit Report Delayed?. *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Studies (RAPS), 16(4),* 73-99.

[20] N. C. Kang, J. S. Heo & S. I. Kim.(2020). The Corrective Disclosure on Preliminary Earnings Release and Audit Delay. *Korean Accounting Journal, 29(2),* 23-47.

[21] H. J. Park & J. H. Choi. (2021). The Effect of Information Asymmetry on Audit Report Lags. *The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63(4),* 411-70.

[22] K. A. Bentley-Goode, N. J. Newton & A. M. Thompson. (2017). Business strategy,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and audit reporting quality.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36(4),* 49-69.

[23] H. S. Ryu, K. S. Kim & G. D. Choi. (2015). Business Strategy and Cost of Capital. *Korean Accounting Journal, 24(6),* 395-431.

[24] G. D. Choi, K. S. Kim & H. S. Ryu. (2017). Business Strategy and Earnings Management. *Korean Accounting Review, 42(1),* 1-62.

[25] J. E. Lee & G. K. Noh. (2021). The Differential Relevance of Voluntary Disclosure and Information Asymmetry depending on the Type of Business Strategy.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97, 103-125.

[26] W. Park & T. W. Kim. (2021). The Effect of Managerial Ability and Business Strategy on Cost Asymmetry.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99*, 203-234.

[27] S. Y. Kwon, H. G. Shin & J. Y. Jeong. (2006). The Effect of Audit Hours and Audit Fees on Earnings Management. *Korean Accounting Review, 31(4)*, 175-201.

[28] J. S. Park & J. W. Choi. (2008). The Effects of the Litigation Risk on Audit Hours and Audit Fees. *Journal of Taxation and Accounting, 9(4)*, 223-247.

[29] S. S. Yoon. (2001). A Comparison of Earnings Management Between KSE Firms and KOSDAQ Firms.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29)*, 57-85.

[30] M. R. Jung & H. Y. Lee. (2008). Accrual anomaly in the two Korean stock markets. *Yonsei Management Research, 45(1)*, 19-42.

[31] J. S. Choi, Y. M. Kwak & J. H. Baek. (2010). Earnings Management around Initial Public Offerings in KOSDAQ Market Associated with Managerial Opportunism. *Korean Accounting Review, 35(3)*, 37-80.

[32] H. S. Shim & H. J. Jeon. (2014). Beating Earnings Thresholds of the KOSDAQ- listed Firms Compared to the KSE-listed Firms. *Journal Finance and Accounting Accountiong Information, 14(3)*, 249-268.

[33] M. L. DeFond & J. Jiambalvo. (1994). Debt covenant effects and the manipulation of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7(1-2)*, 45-176.

[34] J. H. Kim, O. R. Oh, Y. S. Lee & H. C. Roh. (2020). Estimation of Audit Quality Improvement by Period after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Adoption. *Journal of Taxation and Accounting, 21(5)*, 165-191.
DOI : 10.35850/KJTA.21.5.06

[35] C. L. Becker, M. L. Defond, J. Jiambalvo & K. R. Subramanyam. (1998).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earnings management.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5(1)*, 1-24.

[36] Y. S. Lee, K. P. Noh & K. H. Park. (2021). The Effect of Standard Audit Hours Policy on Audit Hour.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34(2)*, 307-324.

김 정 훈(Jeong-Hoon Kim) [정회원]

· 2000년 2월 : 서울대학교 철학과(문학사)
· 2007년 2월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석사)
· 2010년 12월 : 미시간주립대학교 재무학과(재무학석사)
· 2020년 3월 ~ 현재 :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금융시장, 세무회계
· E-Mail : zeed822@gmail.com

김 민 희(Min-Hee Kim) [정회원]

· 2015년 8월 : 숭실대학교 회계세무학과(경영학석사)
· 2021년 2월 ~ 현재 :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박사
· 관심분야 : 재무회계
· E-Mail : kminhee_@naver.com

도 기 철(Kee-Chul Do) [정회원]

· 2017년 2월 : 숭실대학교 회계세무학과(경영학석사)
· 2017년 3월 ~ 현재 :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관리회계, 세무회계
· E-Mail : dohappyman@korea.kr

이 유 선(Yu-Sun Lee) [정회원]

· 2016년 2월 : 숭실대학교 회계학과(경영학석사)
· 2020년 2월 ~ 현재 :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박사
· 관심분야 : 재무회계
· E-Mail : 2yyus@naver.com